

별빛 아래 머무는 완주의 밤 ‘호응’

‘별빛주막 : 소양점’ 야간경관 · 로컬 미식 · 공연 · 체험형 콘텐츠 결합 야간관광 축제 성료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최근 소양 오성한옥마을 및 소양고택 일원에서 개최된 ‘2025 제2회 별빛주막 : 소양점’이 약 1,0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2일 밝혔다.

‘별빛주막 : 소양점’은 야간경관 · 로컬 미식 · 공연 ·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한 완주형 감성 야간관광 축제로, 지난해 첫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며 지역 대표 야간 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공연 프로그램과 K컬처 기반 체험 콘텐츠를 강화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옥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와 감성적인 공간 구성은 방문객들에게 ‘머무르는 밤, 관광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축제에서는 미식존과 공연 관람존을 분리한 이분화 공간 운영을 통해 식음 체험의 만족도와 공연 집중도를 동시에 높인 점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한식 푸드존 △흑곰곰 막걸리 시음 △미식 프로그램 ‘한입의 완주’ △K컬처 주제 공예 체험 및 플라마켓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에게 풍성한 야간 미식관광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했다.

무대 프로그램 역시 높은 관심을 받았다. K-팝 데몬헌터스 비파연주자 김주영, ‘아름다운 나라’의 가수 신문화, 한복 디자이너 박준영의



최근 소양 오성한옥마을 및 소양고택 일원에서 개최된 ‘2025 제2회 별빛주막 : 소양점’이 약 1,0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특강 ‘한복의 길’, 판소리 명창 소덕임과 완주 종류학교의 공연 등이 이어지며 고품격 공연 큐레이션을 선보였다.

특히 지역 상인과 협업해 구성한 로컬 미식 패키지 ‘소양한상’은 완주의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로 한옥 경관과 완주 미식 문화의 조화를 표현한 대표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또한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제로웨스트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다.

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제2회 별빛주막:소

양점은 완주의 야간경관 · 로컬 정체성 · 청년 콘텐츠가 결합된 대표 관광 브랜드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의 운영 과정에는 지역주민, 예술인, 청년기획자가 적극 참여하였으며, 지역 기반 문화관광 추진 모델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도 축제의 품질과 방문객 편의 개선을 바탕으로 완주만의 야간관광 콘텐츠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시, 연말 공연 다채롭게 펼쳐진다

시립예술단 공연 · 뮤지컬 · 연극 등 풍성

남원시가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연말 문화 예술 공연을 연속적으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남원시립예술단의 전문성과 남원 문화 도시의 기반을 바탕으로 남원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무대를 기획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남원시립예술단은 국악, 농악,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남원의 전통과 현대 감성이 결합 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12월 5일에는 시립농악단의 창작 타악연희 ‘판국이 전하는 이야기’가 남원시립예술단 공연장(청아원)에서 전통 연희의 구성에 현대적 요소를 더한 작품으로 남원 농악의 특색과 지역 예술의 정체성을 관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12월 12일과 13일에는 시립국악단의 송년 민속악 공연 ‘온고지신(溫故知新)’이 무대에 올

라 국악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남원 국악의 품격을 보여주는 무대로 기획되었다.

이어 20일에는 시립합창단이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송년음악회를, 30일에는 시립예술단의 전 장르가 함께 참여하는 송년 합동 공연으로 국악 · 농악 · 합창 등 시립예술단의 역량을 집약한 공연으로, 남원만의 문화적 특성이 극대화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시립예술단 공연 외에도 시민들의 관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춘 기획 공연으로 12월 13일에는 뮤지컬 ‘Dear My 파더’가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회(15:00, 19:00) 공연, 24일과 25일은 연극 ‘만선’이 시립예술단 공연장(청아원)에서 진행된다.

공연은 인터파크티켓을 통한 온라인 사전 예매와 현장 발권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존 가 30,000원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특별할인’으로 10,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남원시는 연말 공연을 집중적으로 구성함으



로써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시립예술단의 전문성과 남원만의 문화적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13일 송년공연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오는 13일 오후 4시 열수미루 대공연장에서 송년공연 ‘2025년을 함께한 아름다운 사람들’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송년공연은 무형유산이 일상 속에서 전해 준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3부 ‘강패와 경찰’ (4)

사람 죽었냐?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살인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요, 형님.”

“뭐! 살인! 너…… 사람 죽었냐?”

오정태의 목소리는 단번에 고개를 숙였고 떨리기까지 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건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감방에서 10년 이상을 써야 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요, 형님.”

“휴우, 알았다. 나중에 연락하자.”

성이 바짝 올랐던 오정태의 목소리가 푹 꺾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강동식 너도 이제 인생 중쳤구나. 오정태의 한숨에 담긴 의미였다.

동식은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서 말보로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감방에 들어가면 이 말보로를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박창수를 누가 죽였을까. 혹시 강용대란 자가 미리 손을 쓴 게 아닐까. 박창수가 강용대를 죽이려 할 만큼 원한이 있다면 강용대도 박창수에게 앙심을 품고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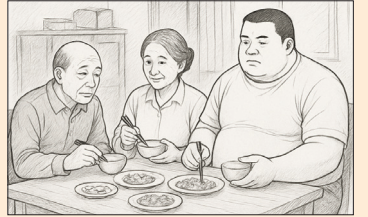
박창수가 누구인지, 강용대가 누구인지,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봐야겠다. 어제 저녁 강정근은 이야기 말미에 박창수를 언급했다.

박창수는 고창에 산다고 했다. 박창수를 만났던 장소도 강정근의 집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강정근이 언급한 그 박창수가 혹시 죽었다는 이 박창수 아닐까. “그러? 그렇지 않아도 나도 나머지 얘기를 다 못해서 잠깐 했더니 잘 되었네. 저녁 판에 집으로 와.”

강정근은 동식의 전화를 받기위했다.

동식은 반쯤 생각나 듯 다시 전화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오늘 봉사활동을 가는 날인데 경찰서에 잡혀가느라 가지 못했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찍혀 있었다.

보호관찰관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다른 날 오늘 못한 봉사활동 시간을 연장해서 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성실하게 입한 공



적을 인정하는 건지 보호관찰관은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동식은 다시 무장면 월립리 봉림마을로 차를 몰아갔다. 어제 약주를 많이 마셔서 오늘은 보양이 될 만한 장어를 사서 갔다.

강정근 부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담은 봉투를 부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받지 않겠다는 걸 억지로 우겨넣듯 밀어 넣었는데, 부인은 사양하다가 껌연쩍은 웃음을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혹시, 강용대라는 분 아세요?”

저녁을 먹으면서 동식은 궁금중 보파리를 풀어놓았다.

“어? 자네가 그 양반을 어떻게 아는가? 그 양반 여그 떠난 지 아주 아주 오래 되었네.”

막 수저로 뜬 밥을 입에 넣으려다 멈추고 놀란 눈으로 강정근이 동식을 바라봤다.

“어제 중화생 때 이야기를 하면서 박창수라는 분을 말씀하셨는데…….”

강정근은 눈을 더 훌쩍 키우고 심각한 표정으로 동식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박창수라는 분하고 강용대라는 분이 서로 아는 사이예요?”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모르는 사이라고 할 수도 없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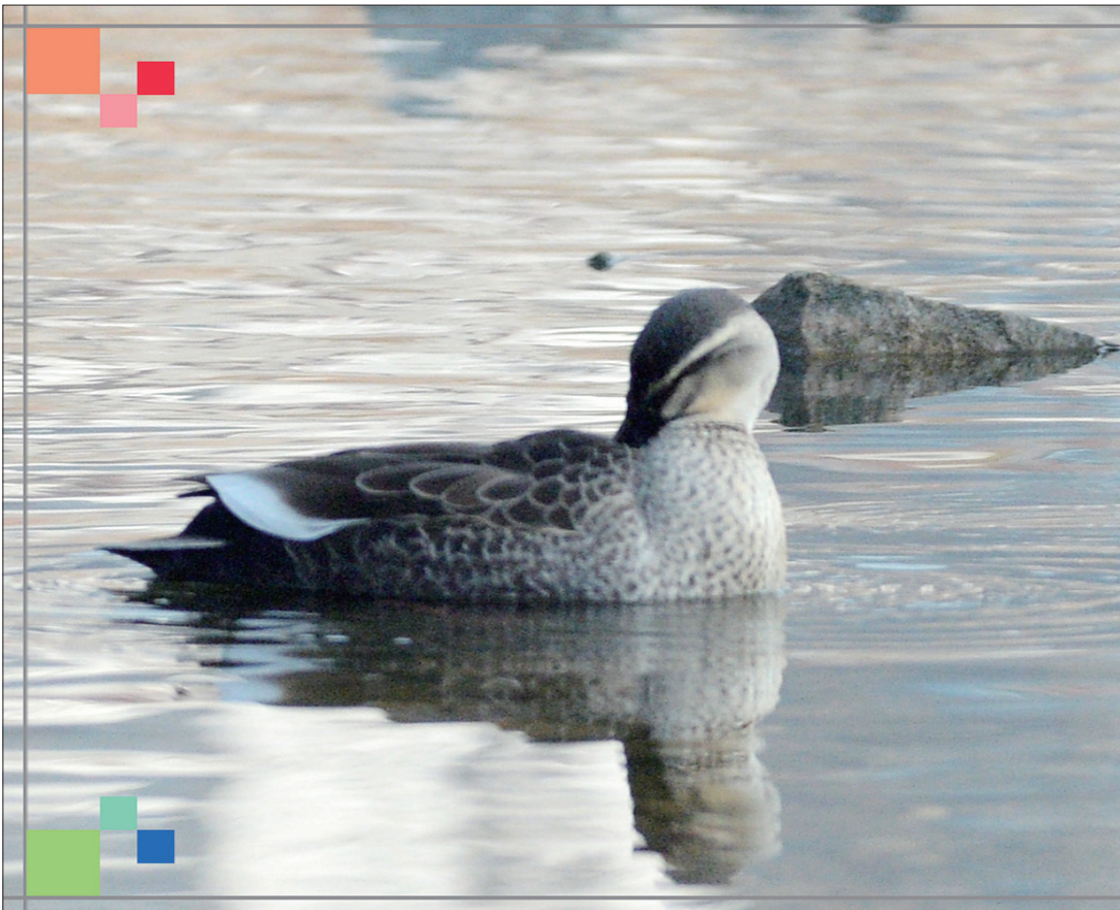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시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던 강정근은 숨을 한번 내쉬었다.

“일단…… 밥부터 먹고 천천히 얘기하자고 얘기가 길어질 것 같군 그러.”

위로와 희망, 그리고 연대의 의미를 관객과 함께 나누는 무대로, 총 3막으로 구성됐다.

먼저 1막 「겨울부터 여름을 맞이까지」에서는 방수미 명창과 소리꾼들, ‘우리음악집단 소속’이 출연해 판소리 춘향가 중 ‘농부가’부터 ‘어사출두’ 대목까지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을 소리로 풀어낸다. 이어 2막 「여름의 한가운데서」는 이 시대 대표 연희집단 ‘더(THÉ) 광대’와

‘연희집(店)추리’, 한국무용의 새로운 관을 만들어가는 무용단체 ‘시나브로 가슴에’가 함께 춤을 추는 신명나는 무대로 채워진다. 마지막 3막 「가을부터 다시 겨울로」에서는 대중가수 인순이, 유지숙 서도민요 전승교육사, 한용원 밴드, 박병태 동해안별신굿 전승교육사 등 다양한 출연진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